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태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꽃을 모티브로 한
리빙오브제 제작 연구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최유리

꽃을 모티브로 한
리빙오브제 제작 연구

박태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최유리


인준서

최유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김기관 

심사위원 박태성 

심사위원 한영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자연은 유연한 리듬감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소재이자 모든 형상의 모티브이다. 특히 자연물 중 꽃은 아름다움과 화려함의 상징으로 얇고 섬세한 곡선, 색감과 형태는 다양한 이야기와 신화 등에 등장하였고 높은 상징성으로 인하여 예술분야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왔다.

최근 실내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간을 꾸미고 연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자분야에서도 식기뿐만 아니라 기능을 갖춘 다양한 장식적 오브제가 나타나면서 그 범위 또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자체로 장식성과 상징성을 겸비한 꽃을 모티브로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오브제를 제작함으로써 조형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리빙오브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꽃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과정을 위해 먼저 꽃을 구성하는 화관, 꽃받침, 암술, 수술의 생태적인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꽃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통꽃과 갈래꽃 등의 분류 기준을 전제로 디자인하였다. 꽃의 조형적 표현과정에 있어서는 꽃의 종류마다 가진 꽃의 전체적인 형상과 곡선을 기(器)의 형태에 대입을 하여 다양한 형태를 모색하였으며 꽃잎과 꽃술의 표현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시선 위치의 차에 의한 형태 변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상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작방법으로는 꽃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하기 위하여 플렉서형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꽃의 다양한 색감표현을 위해 청화 안료와 색 유약에 의한 색상을 활용하였으며 꽃 자체에서 보이는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스프레이 분사 등에 의한 장식기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꽃술과 같은 선적인 형태의 형상표현

을 위하여 도자재료 외에도 금속 등의 타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꽃을 모티브로 리빙오브제에 제작함으로써 장식성은 물론 예술성을 겸비한 도자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우리 생활 속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동기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II. 본론	3
1. 꽃의 형태적 특징에 따른 분류 및 특징	3
1) 꽃의 구조 및 특징	3
2) 화관의 형태적 특징에 따른 분류 및 특징	4
2. 꽃의 이미지를 활용한 조형적 표현방법	8
1) 연구자의 시선 위치에 따른 형상화 작업	8
2) 10종의 꽃을 모티브로 한 이미지표현 연구	11
3. 제작방법	17
1) 형태 제작과정	17
2) 꽃술 제작과정	17
3) 채색 장식 제작과정	19
4. 시작품	21
III. 결론	31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통꽃의 분류	5
【표 2】 갈래꽃의 분류	6
【표 3】 측면의 형상화 이미지	9

도 판 목 차

【도판 1】 꽃의 구조	3
--------------------	---

시 작품 목 차

【작품 1】 Flowery	21
【작품 2】 Flowery2	22
【작품 3】 Lily	23
【작품 4】 Lily Bowl	24
【작품 5】 Glory Bowl	25
【작품 6】 Columbine	26
【작품 7】 Compound flower	27
【작품 8】 Lyreflower Vase	28
【작품 9】 Anthurium	29
【작품 10】 Leaf	30

I. 서 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꽃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자연물로 종류마다 색깔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념일에 주고받거나 많은 의미를 상징하는 수단으로도 꽃을 사용하곤 한다. 이러한 꽃의 내외적인 이미지는 예술가들에게 많은 창작과 영감을 주는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오고 있다.

도자기는 실용성이 주가 되는 분야로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대에는 쓰임이라는 기능이 단지 용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의도에 따라 쓰임을 갖고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실내공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중요시하게 되고 이를 가꿀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과 오브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자의 분야도 함께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하여 최근 도자분야에 있어 공간을 장식할 수 있는 리빙오브제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능성과 더불어 예술적 취향을 반영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꽃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실용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를 함께 갖춘 리빙오브제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꽃이 갖는 조형적 특징을 다각도의 시점에서 바라본 형상을 모티브로 조형화함으로써 공간을 장식할 수 있는 오브제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별한 날 꽃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듯이 기념하거나 장식할 때 꽃의 미감과 곡선을 바탕으로 제작된 예술성을 겸비한 리빙오브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꽃을 모티브로 한 리빙오브제의 조형 표현에 있어 먼저 꽃이 가진 기본 구조와 특성 및 형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꽃의 외적형태의 조형성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화관을 중심으로 크게 통꽃과 갈래꽃으로 분류하였으며 통꽃과 갈래꽃의 특징과 조형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작품의 조형화 과정에 있어서는 꽃을 바라보는 시선과 위치의 차에 의한 형태변화에 착목하여 정면과 측면 등의 위치에서 바라본 형태를 모티브로 형상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꽃의 표현에 있어서 꽃술의 형태는 꽃잎과의 조화를 중점으로 타 재료와의 접목이나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여 제작하였다. 모티브가 되는 꽃의 선정에 있어서는 통꽃의 경우 단순화한 형태만으로도 꽃의 이미지가 잘 파악되고 전달할 수 있는 꽃으로 선정하였고, 갈래꽃의 경우는 공간감이 크고 화려하여 풍성한 리듬감을 가진 꽃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0종의 꽃을 선정하여 꽃과 꽃술의 조형적 표현을 통한 리빙오브제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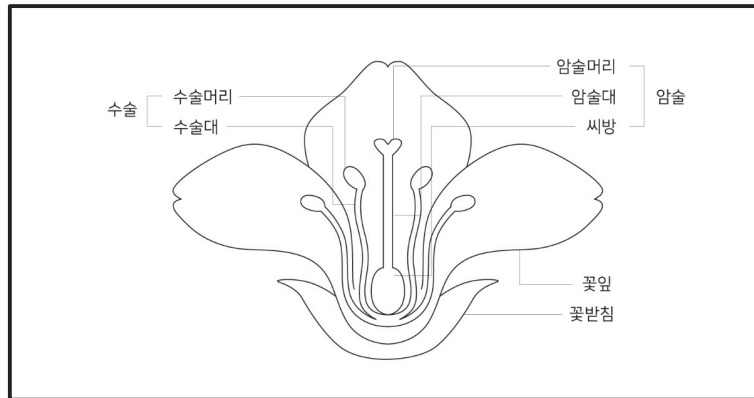
제작방법에 있어서는 꽃의 곡선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물레 성형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꽃술의 표현에 있어서는 조형적특성을 감안하여 도자재료 또는 금속재료를 사용하였다. 꽃마다 가지는 이미지의 표현을 위하여 색감에 의한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따뜻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가진 꽃의 표현을 위하여 색 유약 등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꽃과 꽃술을 모티브로 한 도자리빙오브제의 제작을 시도하였으며 조형적 표현 외에도 실용성을 결합할 수 있는 형상표현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였다.

II. 본 론

1. 꽃의 형태적 특징에 따른 분류 및 특징

1) 꽃의 구조 및 특징



【도판 1】 꽃의 구조

꽃은 종류마다 크기, 형태, 색깔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꽃의 구조는 화관, 꽃받침, 수술, 암술 등 4개의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관(花冠) - 화관은 꽃잎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식물의 구조 중에서 가장 화려하여 눈에 잘 띄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형태에 따라 크게 통꽃과 갈래꽃으로 나뉘며 종류마다 색깔과 형태의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꽃받침 - 꽃받침은 꽃의 가장 바깥쪽 둘레에 있으며 통상적으로 녹색을 띠고 다소 잎과 같은 느낌을 준다. 대체적으로 꽃이 개화한 직후 떨어지거나 화관처럼 변형된 형태를 가진 식물들도 존재한다.¹⁾ 화관이 없는 식물의 경우에는 꽃받침이 화관의 형태를 띠는 것도 있다.

○ 수술 - 꽃의 생식기관으로 꽃가루를 생성하는 수술머리와 얇고 긴 수술대로 이루어져 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그 형태나 길이, 크기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보통 한 개만 있는 암술과 달리 여러 개가 달려있지만 드물게 1개만 있는 것도 존재한다. 수술의 대체적인 조형적 특징은 선적인 느낌이 강하며 식물의 생명력 또는 생동감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 암술 - 꽃의 중심에 위치한 생식기관으로 암술머리, 암술대, 씨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꽃마다 형태나 길이는 다르게 나타난다. 암술대는 암술머리와 씨방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그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것까지 꽃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암술은 보통 한 개가 있으나 꽃의 종류에 따라 2개 혹은 여러 개가 있는 것도 나타난다. 암술의 경우 대체적으로 원형 또는 타원형의 형상이 많으며 이러한 요소는 수술의 선적인 요소와 어울려 다양한 조형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화관의 형태적 특징에 따른 분류 및 특징

꽃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화관의 형태에 따른 분류법, 암술과 수술의 형태와 유무 따른 분류법, 수분 방식에 따른 분류법 등 특징에 따른 다양한 분류법이 있다.

1) S.S. Bhojwani, S.P. Bhatnagar 공저, 고석찬 외 14명 공역 (2000), 『식물발생학』 (서울 : 아카데미저), p.23

본 연구에서는 꽃의 외적인 조형성을 형상화하기 위해 꽃의 주된 요소이자 꽃잎으로 구성된 화관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다.

형태 분류에 있어서는 식물학자 이창복이 집필한 『대한식물도감』²⁾을 참고하였다. 본 도감은 식물 3200여종을 수록한 식물도감으로 식물의 특징뿐만 아니라 식물형태에 따른 분류도 세세하게 수록되어있어 참고할 수 있었다.

화관은 크게 통꽃과 갈래꽃을 나눌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꽃잎의 형태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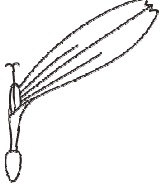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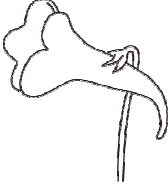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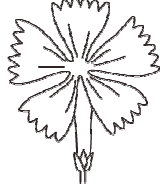




① 통꽃

통꽃은 합판화라고도 불리며 꽃잎이 서로 붙어져 있거나 전반적으로 갈라져 있다가 밑동 부분에서 붙어있는 꽃을 지칭한다. 통꽃에 속하는 종류로는 【표 1】의 중형의 초롱꽃, 설형의 민들레, 거상형의 제비꽃, 석죽형의 패랭이꽃 등이 포함되어있다. 통꽃의 꽃잎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져 있어 전체적인 형태의 곡선은 우아하고 단아한 선으로 나타난다.

꽃의 형상표현 및 장식에 있어서는 잎이 전체적으로 붙어있는 형태이므로 꽃잎의 세세한 결을 표현하기보다는 꽃잎이 이어져서 나오는 부드러운 곡선을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전체적인 형태를 단순화하여 나타내었다. 부드러운 곡선과 잘 어울리는 은화하면서 차분한 색감 표현을 위해 화려한 채색기법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 표현을 중시하였다. 모티브가 된 꽃은 단순화한 형태만으로도 꽃의 이미지가 잘 파악되고 전달할 수 있는 꽃으로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2) 이창복(1980), 『대한식물도감』 (서울 : 향문사)

【표 1】 통꽃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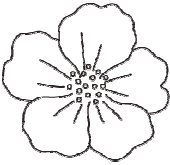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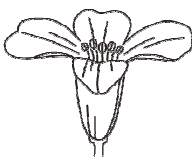





통꽃				
	종형	설형	거상형	석죽형
참고꽃				
	초롱꽃	민들레	제비꽃	페랭이꽃

② 갈래꽃

갈래꽃은 이판화라고도 하며 꽃잎이 서로 떨어진 화관을 갖는 식물들 또는 화관이 없거나 포같이 생긴 형태도 갈래꽃에 포함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갈래꽃에서 통꽃으로 진화한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꽃잎이 없는 식물도 갈래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갈래꽃에 속하는 종류로는 【표 2】의 접형의 콩과 식물, 장미형의 장미, 십자화형의 가는 장대, 투구형의 투구꽃 등이 포함된다. 갈래꽃은 꽃의 밑동 부분에서부터 갈라져 개별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어 꽃잎들이 붙어있는 통꽃에 비해 만개했을 때의 공간감이 크고 화려하여 풍성한 리듬감을 가진 곡선으로 나타난다.

꽃의 표현에 있어서는 꽃잎이 커서 그 안의 결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꽃잎의 결을 조각하거나 음각선으로 나타내고 다양한 채색을 넣어 꽃의 화려함을 담은 장식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모티브가 된 꽃은 만개했을 때 꽃잎이 크고 결이 잘 보여 화려함이 돋보이는 꽃을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표 2】 갈래꽃의 분류

갈래꽃				
	정형	장미형	십자화형	투구형
참고꽃				
	콩과 식물	장미	가는 장대	투구꽃

이상 꽃의 분류에 의한 특징과 조형적 표현의 활용요소에 대해 논하였으나 이와는 별개로 꽃술은 꽃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공통요소이라고 할 수 있다.

꽃술은 꽃의 생식기관으로 꽃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암술과 수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꽃의 종류에 따라 모양과 크기는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분류법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암술과 수술의 형상적 특징을 활용하여 선과 면에 의한 표현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꽃의 장식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2. 꽃의 이미지를 활용한 조형적 표현방법

1) 연구자 시선 위치에 따른 형상화 작업

본 연구에서는 통꽃과 갈래꽃의 종류 중 조형적 특징이 뚜렷하고 오브제로서의 표현이 적합한 꽃을 작업의 모티브로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꽃의 형상표현에 있어서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표현보다는 실용성과의 조화와 연구자의 조형적 감성을 넣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생략화 또는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단순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형태의 변화에 주목하여 시선 위치를 정면과 측면 등의 위치에 두었을 때 보이는 형상을 모티브로 삼았다. 예를 들어 연구자의 시선이 꽃의 측면을 바라보았을 때는 꽃잎의 풍만한 형에서부터 부드럽게 이어지는 줄기의 얇은 선의 형태가 나타내는 유기적인 곡선은 볼(Bowl)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꽃의 구조적인 형태는 Bowl의 형태에 대입하여 적용하였으며 꽃을 간략화한 각각의 다른 Bowl의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꽃과 갈래꽃에서 조형적 미감과 일정부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꽃의 형상을 7종류 선별하여 특징을 부여한 Bowl의 형상을 【표 3】에 정리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no.1의 거베라는 가장 일반적인 꽃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며, 꽃받침, 꽃잎의 전체적인 형상을 단순화하였다.

○ no.2의 은방울꽃은 통꽃의 대표적 품종으로써 종 형상의 오목한 형태가 가장 큰 특징이다. 오목한 형태를 강조하고자 뒤집은 형상을 이용하여 간략화하였다.

○ no.3은 백합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 꽃잎이 옆으로 넓게 펼쳐지는 형상

을 나팔 형태로 표현하였다.

○ no.4는 금낭화의 볼록한 복주머니 형상을 화병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 no.5의 매발톱꽃은 꽃잎은 오목한 형상으로 꽃의 아랫부분이 다른 갈래꽃에 비해 좁아 높이감이 있는 Bowl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 no.6의 개나리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긴 타원형의 꽃잎이 옆으로 펼쳐진 형태로 넓고 납작한 형상으로 나타내었다.

○ no.7의 나팔꽃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윗면이 넓게 퍼진 깔때기 형태로 bowl의 형상에 있는 오목한 형태와 결합하여 밑동이 좁고 윗면이 펼쳐진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꽃의 측면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상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Bowl 형상의 형태디자인을 시도하였다. 또한 꽃의 측면형상이 도자기 형태에서 보이는 Bowl형상과 매우 유사하기에 용기로서의 활용에도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표3】 측면의 형상화 이미지

no.	꽃	분류	형상적 특징	측면의 형상화
1		갈래꽃	거베라는 줄기에 비해 많은 꽃잎들이 활짝 펼쳐진 형상으로 옆에서 바라보았을 때 Bowl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거베라			

2		통꽃	은방울꽃은 종 모양의 형태로 꽃잎의 끝이 6갈래로 나뉘어 뒤로 젖혀져 핀다.	
	은방울꽃			
3		통꽃	백합은 나팔 형태로 꽃잎이 옆으로 넓게 펼쳐지며 끝 쪽은 아래쪽으로 말리며 내려간다.	
	백합			
4		갈래꽃	금낭화는 볼록한 복주머니 모양으로 4개의 꽃잎이 모여 심장 형태를 이룬다.	
	금낭화			
5		갈래꽃	매발톱꽃은 꽃잎이 윗부분에서 펼쳐진 형태로 옆에서 보았을 때 높고 넓게 퍼진 형태로 보여진다.	
	매발톱꽃			

6		통꽃	개나리의 꽃잎은 4갈래로 갈라진 긴 타원형으로 줄기가 짧아 옆에서 보았을 때 넓고 낮은 형태로 보여진다.	
	개나리			
7		통꽃	나팔꽃은 깔때기 형태로 옆에서 보았을 때 윗면이 얇고 넓게 펼쳐져 있다.	
	나팔꽃			

2) 10종의 꽃을 모티브로 한 이미지표현 연구

기존 도자 표현기법에 있어 꽃 표현은 주로 문양을 통해 평면적으로 표현되거나 입체적인 형상도 꽃잎의 형상만을 다루어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꽃을 바라보았을 때 꽃잎의 형태와 색깔, 꽃술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꽃의 특징을 활용하여 조형적 표현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꽃의 구성요소인 꽃잎과 암술, 수술 등의 형상을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꽃의 각 구조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을 장식성과 실용성에 기반을 둔 형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자의 주관적인 심상에 따라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형태를 표현하였다.



꽃의 선정에 있어서는 갈래꽃 7종류, 통꽃 3종류를 선택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측면형상에 대입하여 형상화작업을 시도하였다. 꽃술 등의 조형적 표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도자재료 외에 금속재료 등을 활용하여 경쾌한 선의 이미지 등을 표현하였다.

10종류의 형상화작업 및 장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귀비

갈래꽃	결과물
	
<p>양귀비꽃의 오프려진 모양을 넓고 납작한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꽃잎은 많은 주름의 결이 있어 불규칙하지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곡선은 부드럽고 섬세한 비단과 같은 느낌을 준다. 꽃잎의 결을 살려 음각선으로 표현하였다. 방사형으로 갈라져 있는 암술머리는 꽃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으로 금채로 포인트를 주어 화려함을 더했다. 수술은 암술을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암술과의 조화를 위해 형상을 점의 모양으로 간략화하여 표현하였다.</p>	

(2) 클레마티스

갈래꽃	결과물
	
<p>구불구불한 곡선과 하늘하늘한 이미지를 가진 꽃잎의 형상을 살리면서 간결하고 단순하게 풀어내고자 하였다. 수술의 형태는 도자 재료 특성상 나올 수 없는 얇고 섬세한 선적인 요소이기에 금속으로 제작하여 선적인 느낌을 강조하였으며 암술은 하나하나의 구성을 표현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원적인 덩어리 감을 표현하여 수술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p> <p>꽃의 색감표현에 있어서는 원래의 보라색보다는 난색 계열의 안료를 사용함으로써 따뜻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p>	

(3) 은방울꽃

통꽃	결과물
	
<p>전체적인 형상은 종 모양의 모습을 간결하게 표현하면서 아담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내었다. 꽃술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꽃의 형상에 맞춰 봉긋한 뚜껑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꽃의 색상은 귀엽고 통통 튀는 형상에 맞춰 다양한 색을 보여주고자 청화와 색 안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용도에 있어서는 디저트 용기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였으며 뚜껑과 몸체와의 조화를 통해 은방울꽃의 귀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p>	

(4) 나팔꽃

통꽃	결과물
	
<p>나팔꽃이 완전히 만개했을 때 모습을 모티브로 뚜껑 있는 Bowl을 제작하였다. 형태는 큰 굴곡이 없이 펼쳐지는 갈매기 형태로 꽃의 밑동 부분을 절단하여 안정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꽃잎의 형태는 통꽃 특유의 둥글고 완만한 곡선을 잘 보여주고자 생략화, 단순화를 통해 나타내었다. 꽃술 부분을 뚜껑으로 제작하여 실용성과 포인트를 더하고 꽃의 색감은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이 표현되는 난색 계열의 유약을 사용하였다. 뚜껑 손잡이는 나비의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실제 자연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자 하였다.</p>	

(5) 백합

통꽃	결과물
	
<p>백합의 우아한 이미지를 위해 꽃잎의 결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꽃잎의 말려있는 곡선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둥근 형태로 풀어내었다. 색채 표현은 백합이 가진 특유의 유려하고 순백의 느낌을 잘 보여주기 위해 백 매트유를 사용하였다. 꽃술의 경우 길고 얇은 선적인 요소가 짙어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쪽 뺨은 생동감 있는 곡선을 나타낼 수 있었다. 또한 백 매트 색감과의 대비를 통해 밋밋할 수 있는 꽃의 느낌을 한층 강조하고자 하였다.</p>	


(6) 안스리움

갈래꽃	결과물
	
<p>위의 꽃은 일견 통꽃으로 보이나 갈래꽃에 속하는 꽃으로서 일반적인 꽃들과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사진을 참고로 설명하자면 꽃술로 보이는 붉은 부분은 실제 꽃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잎처럼 보이는 흰 부분은 꽃잎이 아니라 잎에 해당한다. 꽃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하여 보면 실제 작은 꽃들이 군집으로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상화 작업에서는 꽃에 해당하는 부분을 금속으로 제작하여 매트한 질감과 대비되게 하였으며 슬립 캐스팅에 색 유약으로도 제작하여 다양한 재료에 의한 표현 방법을 시도하였다.</p>	

(7) 매발톱꽃

갈래꽃	결과물
	
<p>매발톱꽃은 꽃받침잎이 길게 뻗어 나와 꽃잎과 좌우대칭으로 달려있다. 이러한 형상을 그대로 담고자 꽃받침잎을 판 성형으로 꽃잎의 밑에 끼우는 형식으로 제작하였으며 상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모든 잎이 꽃잎처럼 보이도록 제작하였다. 채색 방법으로는 은은한 청색 안료를 바탕색으로 뿌리고 꽃 안쪽을 붓으로 진하게 채색하여 농담을 주었다. 매발톱 꽃술의 경우 암술과 수술이 길게 붙어있는 긴 기둥의 형태로 간략화하여 표현하였다.</p>	

(8) 금낭화

갈래꽃	결과물
	
<p>금낭화의 전체적인 형상을 높고 긴 형상으로 단순화시켜 화병의 용도에 적합한 형태에 중점으로 두고 디자인하였다. 금낭화 특유의 심장 모양 형태를 전 부분에 조각하여 포인트를 주고자 하였다. 채색 방법으로는 색유약을 분무 시유하여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주었는데 이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표현함으로써 따뜻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p>	

(9) 아네모네

갈래꽃	결과물
	
<p>꽃잎은 넓은 난형(卵形)으로 형태를 갖고 있어 결의 세세한 표현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곡선의 흐름으로 나타내었다. 꽃잎의 색상은 아네모네가 가진 한색 계열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청색계열의 청화 안료를 스프레이 분무하여 나타내었다. 꽃술의 경우 실용성을 위해 겉으로 부각시키기보다는 금채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파란 색상과의 조화를 통해 장식성을 더하였다.</p>	

(10) 거베라




갈래꽃	결과물
	
<p>거베라의 꽃잎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꽃잎의 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표현할 때에도 결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양각으로 조각하였다. 채색 방법으로는 밝고 원색적인 색감을 부담스럽지 않게 보여주기 위해서 안료의 다양한 색상들을 조합하여 나타내었다. 꽃술은 작은 꽃들이 모여있는 형태로 작은 원이 모인 형상으로 나타내었다.</p>	

3. 제작방법

1) 형태 제작과정

본 연구는 꽃을 모티브로 하여 리빙오브제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시선에 따른 꽃의 형태 분석을 통해 꽃받침에서 꽃잎까지의 전체적인 형상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기(器)의 형태 중 Bowl형태에 대입하여 형상을 디자인 하였다. 꽃의 종류마다 가진 특성과 형태를 간략화하여 리빙오브제의 용도에 맞는 Bowl형상을 모색하였다.

성형 방법으로는 꽃마다 가진 고유의 특징을 하나씩 보여주기 위하여 석고 캐스팅방법보다 기물의 두께와 크기 조절이 자유롭고 꽃이 가진 부드러운 곡선의 표현이 자유롭고 전이 넓어 자칫 밑으로 쳐질 수 있는 형태이므로 변형이 적은 물레 성형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꽃의 종류마다 조형성이 다르게 나타나 다양한 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레 성형 후 하나씩 조각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제작과정			
설명	물레를 이용하여 기본 형태를 성형해준다.	건조 후 기물의 곡선이 부드럽게 표현되도록 굽을 꺾는다.	꽃의 형상을 밀그림으로 그린 후 따라서 조각한다.

2) 꽃술 제작과정


꽃술은 꽃의 중심부에 위치한 생식기관으로 암술과 수술로 이루어져 있다. 꽃술은 꽃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형상도 다양하여 도자만의 재료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타 재료와의 접목을 통해 실제 꽃술에서 보이는 경쾌한 느낌과 기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꽃술의 제작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금속재료에 의한 표현 방법과 도자 재료를 이용한 표현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재료에 의한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① 금속 꽃술 제작내용

금속은 도자에서 표현하기 힘든 얇고 섬세한 선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얇고 가늘게 표현된 선은 울동성을 가진 생생한 생명감을 가진다. 이러한 금속의 특징을 얇고 긴 선적인 요소가 짙은 수술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실제 꽃술	금속재료에 의한 결과물
	
<p>길고 얇게 뻗어 나온 곡선적인 형태의 꽃술로 도자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금속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직선으로 곧게 뻗은 암술과 바깥쪽으로 휘어지며 나오는 곡선을 가진 수술은 조화를 이루며 경쾌하고 울동적인 선의 흐름으로 나타난다.</p>	

실제 꽃술	금속재료에 의한 결과물
	
<p>수많은 수술이 암술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수술의 자유로운 높낮이가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가진다. 귀엽고 아담한 도자 꽃술과의 조화를 통해 면과 선의 구성을 표현하였다.</p>	

실제 꽃술	금속재료에 의한 결과물
	
<p>안스리움의 꽃술로 보이는 부분은 꽃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금속으로 제작하여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잎의 매트한 도자 질감과 대비를 통해 꽃의 특징을 강조하고자 하였다.</p>	

② 도자 꽃술 제작내용

도자 재료는 면적인 형태를 표현할 때 용이하기에 원형이나 타원형의 형상을 한 암술이나 다발로 붙어있는 꽃술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형태에 손잡이 등과 같은 기능성을 부여하고자 할 때 형태의 변형을 통해 기능성과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실제 꽃술	도자재료에 의한 결과물
	
<p>암술과 수술이 길게 붙어있는 형상으로 하나하나 표현하기보다 기존의 형태를 참고하여 긴 기둥의 형태로 간략화하고 암술머리 부분을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하여 나타내었다.</p>	

실제 꽃술	도자재료에 의한 결과물
	
<p>실제 꽃술은 꽃의 안쪽에 위치해있으나 꽃의 형상에 맞춰 뚜껑의 형태로 형상을 재창조하여 기능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p>	



3) 채색 장식 제작과정

꽃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채색 방법을 사용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의 색감을 나타내면서도 은은한 색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통꽃의 경우 꽃잎들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단아하고 은화한 이미지를 준다. 은화하면서 차분한 색감 표현을 위해 화려한 채색 기법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따뜻한 난색 계열의 색 유약을 사용하였고 두껍게 시유하여 매트한 질감을 주어 투명유로 표현했을 때보다 은은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갈래꽃의 경우 꽃잎이 갈라져 통꽃에 비해 풍성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준다. 다양한 채색방법을 통해 꽃의 화려함을 담은 장식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꽃잎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색상표현을 위해 스프레이 분무기를 이용하였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꽃의 제작과 표현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선과 색상의 표현을 중점적으로 시도하였으며 장식성과 더불어 기능적 측면을 염두에 둔 형상표현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청화 안료	색유약
	
<p>다채롭고 깨끗한 색상표현이 가능하여 화려하고 장식성이 도드라지는 갈래꽃의 색상을 표현하는데 용이하다.</p>	<p>선명하고 부드러운 색상표현이 가능하여 은화하고 우아한 통꽃의 색상을 표현하는데 용이하다.</p>

4. 시작품



【작품 1】 Flowery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산화소성

173×173×45mm



【작품 2】 Flowery2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산화소성

140×140×40mm

【작품 1】 【작품 2】 제작의도

갈래꽃의 종류들을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갈래꽃이 가진 화려한 이미지를 위해 꽃잎의 크기가 크거나 결들이 잘 두드러지는 꽃들로 선정하였다.

꽃잎 하나하나의 이미지를 조각하여 볼륨감 있는 곡선과 꽃이 가진 다채로운 색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꽃술의 형태에 따라 금속기, 금채 등을 사용해 표현하였고 꽃술과 꽃잎의 조화를 통해 화려함을 더하고자 하였다.



【작품 3】 Lily

백자토, 물레성형, 백매트유, 산화소성

130×130×90mm

백합이 가진 우아하면서 순백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자 세부적인 조각보다는 물레에 의한 자연스러운 선을 강조하였다. 길고 얇게 뺀어 나오는 꽃술은 금속기를 사용하여 생동감이 느껴지는 곡선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순백의 백 매트와의 대비를 통해 순수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4】 Lily Bowl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산화소성

90×90×75mm

은방울꽃을 모티브로 제작하였으며 종모양의 형태에서 보이는 동그랗고 귀여운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몸통은 전 부분을 9종류로 나누어 꽃잎의 모양을 조각하고 뚜껑은 꽃술부분으로 표현하였으며 나비나 꽃등을 손잡이로 제작하여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조형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채색에 있어서는 청화 안료를 스프레이 분무하여 깨끗하고 맑은 색감을 나타내고 금채로 부분 포인트를 주었다.



【작품 5】 Glory Bowl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산화소성

170×170×100mm

나팔꽃이 완전히 만개하였을 때 모습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나팔꽃 자체에 큰 굴곡이 없어 작품의 형태도 간략화하여 표현하였다. 꽃술부분을 뚜껑으로 제작하여 실용성을 더하고 부분 이중시유를 통해 사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였다.



【작품 6】 Columbine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산화소성

230×230×70 mm

매밭튐꽃을 상단에서 보았을 때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하늘 매밭튐꽃의 푸른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푸른 청화 안료를 사용하였고 꽃의 깊이감을 주고자 꽃의 안쪽에 진한 색으로 농담을 주었다.



【작품 7】 Compound flower

백자토, 물레성형, 색유, 산화소성

185×185×82mm

통꽃을 모티브로 제작하였으며 통꽃이 가진 단아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위해 꽃잎을 최대한 단순화시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지게끔 조각하였다. 실용성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5단으로 쌓아올릴 수 있도록 제작하여 보관 등에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8】 Lyreflower Vase

백자토, 물레성형, 색유, 산화소성

125×125×150mm

금낭화를 모티브로 제작하였으며 금낭화의 전체적인 형태를 기본 형태에 대입시켜 화병으로 제작하였다. 붕긋한 주머니 형태를 전 부분에 조각하여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색 유약을 분무 시유하여 금낭화의 색감을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9】 Anthurium

백자토, 물레성형, 백매트유, 산화소성

135×125×37mm

안스리움은 【작품 9】의 금채부분이 꽃에 해당하는 특이한 형상의 꽃으로서 잎은 심장 형상으로 특유의 광택과 두께감이 느껴지는 특징을 매트유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꽃에 해당하는 원기둥은 금속기를 사용함으로써 꽃의 표면 질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작품 10】 Leaf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산화소성

250×150×55mm

색색이 흔들리는 나뭇잎을 모티브로 제작하였으며 긴 타원형으로 조각하여 나뭇잎이 가진 곡선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청화 안료를 스프레이로 채색하여 맑고 깨끗한 색감을 나타내고 부분 금채로 포인트를 주었다.

Ⅲ. 결 론

현대사회에서는 실내공간을 꾸미고자 하는 미적인 욕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도자 분야에서도 장식적 오브제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리빙오브제라는 타이틀의 제품군들이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꽃의 외적인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기능적 측면과 장식적 측면을 함께 갖춘 리빙오브제를 제작하였다.

꽃은 그 자체로 장식성을 갖고 있고 종류마다 형태와 색감이 다양하기에 단순한 문양으로서의 활용을 벗어나 꽃의 형상 자체를 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리빙오브제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꽃의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시선 위치를 바탕으로 보여지는 형상을 기(器)의 형태에 대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모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꽃의 구조 중 꽃술은 조형 표현의 소재로서 흔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꽃잎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소재이다. 꽃술의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는데 도자 재료뿐만 아니라 금속과 같은 타 재료와의 접목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리빙오브제의 장식성에 차별화된 조형적 미감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꽃의 구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꽃잎과 꽃술의 조화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조형성에 대해 고찰하고 꽃의 구조를 조형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형상을 가진 리빙오브제를 모색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류한 통꽃과 갈래꽃의 기준 외에도 다양한 꽃과 꽃술의 분류기준을 활용한다면 조형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번 연구에 있어 꽃의 다양한 이미지표현을 위하여 시간적 제약 상 물레 기법 등의 수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리빙오브제 제품으로서의 기준에 적합한 다량 생산방식과 완성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석고주입 성형과 같은 생산방식의 적용과 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꽃과 새로운 기(器)형태에 대입하여 새로운 기형을 가진 리빙오브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꽃과 꽃술의 모티브로 한 새로운 개념의 도자 오브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S.S. Bhojwani, S.P. Bhatnagar 공저, 고석찬 외 14명 공역, 《식물발생학》,
서울 : 아카데미 서적, 2000

이창복, 《대한식물도감》 서울 : 향문사, 1980

ABSTRACT

A study on living objet from a flower as a motif.

Choi Yuri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Nature is a material having the flexible sense of rhythm and the curves, being a motif for every form. In particular, the flowers among the natural objects are the symbols of beauty and luxury. In particular, their thin and delicate curves, sense of color and form have been depicted in various stories and myths. Owing to their strong symbolism, flowers have been expressed diversely in the arts.

Lately, as people have been more and more concerned with their interior space, more and more people desire to decorate and render their interior space. Also in the ceramic area, not only the tablewares but also diverse decorative objects have appeared, while its scope have been expa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an object using the flower as motif to satisfy our contemporary people's diversified desires. For this purpose, a living object featuring formativeness and functionality has been suggested.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of a flower image embodied, the

researcher reviewed the ecological structures of such elements of the flower as corolla, calyx, pistil and stamen, and then, designed a living object by referring to the classifications such as gamopetalous flower and schizopetalous one. In the process of expressing the formative beauty of the flowers, the entire forms and curves of the flowers were substituted into the form of the vessel to explore diverse forms. Especially in the expressions of petals and pistils/stamens, the researcher attempted to infer diverse forms changing from researcher's perspective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express the natural and soft curves of the flower, the researcher used the jiggering technique to vary the forms for an organic change. Moreover, for the expression of the diverse color senses of the flowers, the researcher used the colors made from the cyanidated pigment and color glaze. And in order to express the diverse hues shown in the flowers themselves, the researcher used such decorative techniques as spraying. Furthermore, in order to express the linear forms as pistils/stamens, the research used the materials such as metals in addition to the ceramic materials, while using the diverse techniques.

All in all, this stud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varied uses of the ceramic such as decoration and artistry by producing an living object with the motif of flowers, while exploring its wider uses in our ordinary life.